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2019. 12.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 발 간 사



농촌의 지속적인 과소화와 빈집, 복지소외, 양극화 현상, 농작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활력을 잃어 지방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주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면서 본 연구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이 더불어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농촌의 주체인 청년, 여성,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와 농촌의 생활·생산·복지의 융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농촌 복지의 융복합을 위해서는 농촌 복지의 실태를 분석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충남 농촌의 복지 공동체”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모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농촌주민, 연구모임 회원, 관련 전문가 등과 워크숍 및 현장방문을 통해 얻어진 추진 과제를 모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제시된 내용이 실현되어 누구나 살기 좋은 충남 농촌의 복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연구모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 연구모임 회원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양 금 봉





# ● ● 목 차 ● ●

|                  |   |
|------------------|---|
| I. 연구모임 개요 ..... | 3 |
|------------------|---|

## II. 연구모임 활동 경과

|                       |    |
|-----------------------|----|
| 1. 1차 회의 (창립식) .....  | 9  |
| 2. 2차 회의 (현장방문) ..... | 21 |
| 3. 3차 회의 (현장방문) ..... | 27 |
| 4. 4차 회의 (토론회) .....  | 36 |

## III. 연구모임 성과 및 제안

|                |    |
|----------------|----|
| 1. 활동성과 .....  | 77 |
| 2. 정책 제안 ..... | 79 |



# 1. 연구모임 개요



# I.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 세부사업계획

## 1. 추진 목적

- 미흡한 농촌 복지 현 실태와 관련 정책 등 분석 및 검토
- 연구 성과를 도정 및 일선 시·군에 반영 유도하고 보고서 발간·정보 공유
- 농촌의 주체인 청년, 여성,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와 농촌의 생활·생산·복지의 융복합화 방안 모색

## 2. 추진방향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농촌 주민 및 농촌 복지 관련 종사자
- 사업기간 : 2018년 9월 ~ 2019. 11월(15개월)
- 사업내용
  - 농촌복지 정책의 최신 동향과 토론 과제 선정 회의
  - 충남 농촌복지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과제 추진 관련 연구모임 회의(수시)
  - 충남 농촌복지 과제 발굴 워크숍 개최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 3. 세부사업 계획

###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토론 과제 선정 및 회의 개최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발족식 및 회의(수시회의)
  - 농촌 복지 실태 현황 및 쟁점도출, 추진과제 선정

## 2)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사업개요 : 충남 도내 현장방문 및 인터뷰
- 사업내용
  - 우수지역 및 소외지역 현장방문
  - 지역주민과의 토론회를 통한 현황 파악과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 3) 충남 농촌복지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

- 사업개요 : 전문가 및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발굴 워크숍
- 사업내용 : 농촌복지 향상을 위한 전문가와의 토론회 개최

## 4) 발간보고서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연구 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4. 사업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18. 8월)
- 연구모임 1차 회의(18. 9월)
  - 발족식 및 연구방향 토론
- 현장방문 및 주민 인터뷰(18. 10월)
  - 충남도내 우수 및 소외지역 방문
- 연구모임 2차 회의(18. 11월)
  - 현장방문 결과 및 운영방향 토론

- 연구모임 3차 회의(19. 3월)
  - 추진과제 중간 점검 및 워크숍 준비 의견 청취
- 충남농촌복지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19. 5월)
- 연구모임 4차 회의(19. 7월)
  - 워크숍 결과 토론 및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작성 의견 청취
- 보고서 발간 및 배포(19. 9월)

## 5. 기대효과

- 농촌현실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농촌 복지서비스의 강화
- 농촌의 청년, 여성,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
- 도의회 연구모임 활성화로 연구하는 도의회 만들기 성과 창출

## 연구모임 회원

| 구 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
| 대 표 | 양금봉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
| 간 사 | 정석호 |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br>초빙책임연구원 |
| 회 원 | 김기서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
| 회 원 | 김영권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
| 회 원 | 전익현 |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원      |
| 회 원 | 김동일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
| 회 원 | 김윤호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                |
| 회 원 | 조평곤 | 충청남도 농촌활력과장                |
| 회 원 | 구자인 |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
| 회 원 | 태희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
| 회 원 | 서정민 |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
| 회 원 | 하종중 |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이장             |
| 회 원 | 윤금이 | 아산시 젠더포럼 대표                |
| 회 원 | 홍성민 | 서천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 회 원 | 구선희 | 한우리독서논술학원장                 |



## II. 연구모임 활동 경과



## II. 연구모임 활동 보고

### 1. 농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1차회의

#### 1) 연구모임 1차회의 개요

##### □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9. 17.(월) 16:00 ~ 17:30
- 장 소 :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108호)
- 주 제 : 농촌복지 정책 동향과 토론 및 연구모임 주제 발굴
- 참석인원 : 16명(연구모임 회원 12, 직원 등 기타 4)

##### □ 주요내용

- [발표] 농촌복지 현황과 개선 방안(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
- 발제에 대한 전체 토론 및 논의
- 연구 모임 내용 및 전체 일정 논의
  - 농촌복지체계시스템 구축의 기반 수립을 위한 방안 및 토론과제 선정

#### 2) 발제 및 토론 내용

##### □ 발제 내용(요약) : 농촌복지 현황과 개선방안

- 복지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을 위한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행정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하며, 복지권을 위한 생산적 복지(예방적 복지) 강화가 중요
- 농어촌 복지 논의의 전제사항으로 농어촌의 지역적 조건 반영, 일반적인 복지의 보편성 실현, 복지의 지역격차 해소, 복지의 성별격차 해소하는 양성평등 실현을 제시함
-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행정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 농촌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어촌의 지역적 조건을 반영한 복지의 지역격차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함

## □ 토론 주요 결과

### ○ 회원 토론 내용

-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읍면지역에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개선을 통해 민관거버넌스 방식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해야함
- 마을의 공동체 붕괴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청년유입을 유도하고 젊은 농촌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 방안 고려 필요
- 행정의 일방적인 지원 보다는 충남의 지역적 차이와 지역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공동복지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 복지에 대한 폭이 확장되어야. 찾아가는 복지 방향(신청주의)과 교육으로 개선되어야하며 읍면의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읍면중심지가 농촌복지의 거점이 되도록 인력배치 및 지원이 필요
-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문예분야가 포함된 포괄적인 복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교육, 영화보기, 학교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현재 복지 분야는 행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비용증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임. 공동체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자조적인 복지를 구축하고 긴급한 일 중심으로 행정이 담당하는 체계로 바뀌어야함
- 공동체 복지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 담당부서의 소규모 중복 투자로 인해 효과가 작은 것임. 지금부터라도 읍면단위를 중심으로 행안부 주민자치 전환과 연계한 통합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 사업 발굴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의 문제이므로 읍면동 단위 거점 공간과 지원조직이 필요함
- 복지에 대한 관점을 넓히고 불분명한 타 부서와 연계하여 복지관련 예산들을 융복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
- 읍면을 중심으로 복지공간 구축하는 것은 동의하나, 현재 복지의 주요 수요층인 어르신 이동 제한 개선에 대한 정책은 많지 않음. 방문형 복지의 확대와 공공교통체계 개선, 봉사 중심이 아닌 적절한 임금을 받는 복지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농촌복지 정책 필요
- 많은 복지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며, 실현하는 방법을 위해서 예산도 도와 시군 매칭 예산과 도 중심 예산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필요

○ 도출 내용 : 연구 모임 방향성 선정

- 소외되어 있는 농촌 복지 분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모색
- 고령화 사회에서 농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방안 모색
-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도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체 상호작용에 의한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읍면동 주민자치공공서비스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과 서비스 체계를 위한 행정내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

□ 현장 활동 사진



□ 연구모임 활동 언론보도

# 충청투데이

2018년 09월 18일 (화)  
정치 05면

## 충남도의회 농어촌 복지 향상위한 연구모임 창립

충남도의회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17일 도의회에서 창립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급속한 고령화,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의 현 복지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의 복지 공동체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농어촌지역을 위해 기존 복지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주민 바람

과는 차이가 있는 사업이 많아 실제 주민이 느끼는 복지 지원 체감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대표는 “농어촌의 복지 시스템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농어촌 거주민 중 고령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찾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귀농·귀어·귀촌인과 청년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113 X 67 mm

# 중앙매일

2018년 09월 18일 (화)  
종합 02면

## 충남도의회, 농어촌 복지 위한 활동 ‘달’ 올려

### 농어촌 복지를 위한 지원 사업 주민 체감도가 턱없이 부족... 대응책 고심

충남도의회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19일 도의회에서 창립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급속한 고령화,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의 현 복지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의 복지 공동

체 구축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농어촌지역을 위해 기존의 복지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주민의 바람과는 차이가 있는 사업이 많아 실제 주민이 느끼는 복지 지원 체감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대표는 “농어촌의 복지시스템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농어촌 거주민 중

고령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찾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귀농·귀어·귀촌인과 청년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돼야 농어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의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고,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농어업자

체나 마을도로 포장 등 하드웨어적 지원에 많이 치우쳐 있다”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을 발굴해 누구나 살기 좋은 충남 농어촌의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이 연구모임을 결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양금봉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5명의 의원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차년도 운영을 갖고 2019년 2차년도 운영을 거쳐 2019년 9월경에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오현수 기자

241 X 72 mm

□ 연구모임 1차 발제 내용

# 농촌복지 현황과 개선방안

젠더 & 공동체  
오미란

G&C

## 목 차

- I 복지설정 기준
- II 농어촌 삶의 여건 변화
- III 지역사회 복지정책 현황
- IV 농어촌 복지정책 개선방안

2

G&C



## 1장. 복지설정 기준

### ● 복지국가란

복지국가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위한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국가로 정의됨

### ● 국민복지의 수준

‘한 사회가 공적제도를 통해 개별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사회적 발전수준에 부합되게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의 수준’

### ● 국민복지 기준

- 국민최저기준 : 공적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최저수준의 복지를 보장
- 국민적정기준 : 최저수준 이상의 보장

3



## 국민복지 기본선의 두가지 유형과 원리

| 유형       | 최저기준                                                                                                          | 적정기준                                                                                                                                     |
|----------|---------------------------------------------------------------------------------------------------------------|------------------------------------------------------------------------------------------------------------------------------------------|
| 수준       |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 제공돼야 할 ‘최저수준(minimum level)’                                                                 | ‘적정수준(adequate level)’                                                                                                                   |
| 책임 주체    | 국가 책임                                                                                                         |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 책임을 지는 사회적 공동 책임                                                                                                          |
| 재원 부담    | 조세를 통한 국가 부담                                                                                                  | 조세 외에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적 공동 부담                                                                                                           |
| 주요 적용 대상 | 빈곤층, 노동시장 탈락자나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중 저소득층                                                                         | 저소득층 이상의 계층 혹은 위험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계층                                                                                               |
| 권리 성격    | 구체적 권리(청구권의 성립)                                                                                               | 추상적 권리(청구권의 미 성립)                                                                                                                        |
| 운영원칙     | 정책 결정 및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입자의 민주적 참여                                                                                |                                                                                                                                          |
| 영역       |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보호 등 전 사회복지 영역                                                                                |                                                                                                                                          |
| 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버리지보고서」(1942)</li> <li>◦ 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1952)</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LO의 ‘고용재해급여에 관한 조약’ (1964),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조약’ (1967), ‘의료 및 상병급여에 관한 조약’ (1969) 등</li> </ul> |

4





## 농어촌 복지 논의의 전제사항

### ● 농어촌의 지역적 조건 반영

- 농림어업 종사 인구가 많음
- 도서(복지접근성이 낮음) 특징 반영
- 인구학적 특징(과소인구, 노령인구- 전국 최대)

### ● 일반적인 복지의 보편성 실현

- 건강, 돌봄, 기초사회보장 제도, 폭력으로 부터 보호, 이웃의 지지, 문화, 의료서비스, 주거 등

### ● 복지의 지역격차 해소

- 복지서비스 질, 양, 접근성

### ● 복지의 성별격차 해소하는 성평등 실현

5



## 2장. 농어촌 삶의 여건 변화

인구감소, 고령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6



## 농어촌 삶의 여건 변화

- 농가의 양극화가 확대 : 3000만원 미만 농가 72%
- 작물재배 형태의 변화로 여성노동력 수요증가
  - 농외소득 취업자 증가, 과수 특작의 증가
- 농가의 소득구조 악화 : 생산비 증가, 현금수요 증가
-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성평등 정책의 강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중요성 인정분위기 확산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영유아 양육서비스 시설 확대 및 지원강화,
-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여성, 가족(특히 아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
- 노인인구에 대한 농어촌 개호 대상과 내용의 확대가 실시되고 있음.
- 6차 산업 실시로 여성의 역할 증대(가공, 유통, 마을기업 등)

7

G&C

## 3장. 농어촌 복지정책 현황

### 삶의 질 5개년 계획

#### 목 표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 주요 과제

#####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 취약 농어업인 사회 안전망 강화
- ▶ 농어업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 개선
- ▶ 농업인 중증적 노후 안정 지원체계 강화

#####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 ▶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역량 강화
- ▶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사각 해소
- ▶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 현대화
- ▶ 소외 보건서비스 강화

##### 계층별 복지 서비스 강화

- ▶ 취약가구 자립 지원
- ▶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 ▶ 여성진화 사회 조성 및 여성 역량 강화
- ▶ 다문화 사회통합 환경 조성

#####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 ▶ 희망복지 지원단 기능 강화
- ▶ 보건복지 연계 지원
- ▶ 가버넌스, 민간 조직 공조 강화

8

G&C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9



## 지역사회보장계획[기초자치체]

|                           |                                                                                                                       |                                                                                                            |
|---------------------------|-----------------------------------------------------------------------------------------------------------------------|------------------------------------------------------------------------------------------------------------|
| <b>비전</b>                 |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                                                                                                            |
| <b>정책목표</b>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br>✓ 일을 통한 자립 지원<br>✓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                                                                                                            |
| <b>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b> | <b>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b><br>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br>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br>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b>건강하고 안정된 생활</b><br>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br>주거안정 대책 강화<br>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
|                           | <b>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b><br>노후소득 보장 강화<br>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br>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 <b>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b><br>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br>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br>농어업인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br>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
| <b>일을 통한 자립 지원</b>        | <b>고용·복지 연계</b><br>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br>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br>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br>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                                                                                                            |
| <b>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b>    | <b>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b><br>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br>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확대<br>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br>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 <b>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b><br>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br>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br>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br>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

10



## 농어촌 복지정책 현황[성과와 한계]

### 복지관련

- 계층별 복지 확대 : 아동, 청소년, 중장년, 여성, 노인  
아동 : 어린이집, 방과후  
청소년 : 위스타트...청소년 센터  
중장년 : 직업적 복지(농작업 재해, 연금 등)  
여성 : 도우미, 행복바우처  
노인 : 개호보험 실시  
다문화 : 언어, 직업, 문화 지원
- 공동체 : 농번기 공동급식, 행복복지지원단, 문화활동
- 제도 : 행복복지센터(면단위 거점 조성)

### 한계

- 행정시스템의 다층 : 복지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등
- 소극적 복지 지원 : 사업자율성 저하(행복바우처 등)
-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부족  
노년인구의 증가, 젊은 인구 과소화, 노동경감 등
- 지방이양사업(여성농업인 센터 등) 불안정성 증대
- 농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성 극복 못 함
- 마을단위 복지체계 강화 방안 미흡
- 성평등 지원 취약 : 교육x, 폭력피해 지원시설 거의 없음

## 4장. 농어촌 복지정책 개선방안

### 지역사회 변화 특징 반영

인구사회학적 요인 : 고령화, 과소화, 다양화(구성원: 귀촌, 결혼이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경제사회적 여건 : 농어촌 주민 차이성 확대 - 경제규모 격차, 생활양식

문화적 욕구 다양화 : 문화인프라 접근성 강화

### 복지의 지역격차, 성별격차 해소

접근성 해소 : 농어촌 지역 거리 접근성, 시설접근성 해소

지역특성 반영 : 복지수혜의 보편성, 복지서비스 제공의 특수성(농촌형)

최소수준의 일반성 보장 : 성별 특성 반영, 돌봄서비스 확대, 임신출산 등

여성의 특수성 보장 반영, 폭력 등으로 부터의 보호권 확대



## 영역별, 계층별 쟁점들



### 아동

어린이집 없는 면단위 발생

인증 보육시설 기준 요건 불충분(아이의 감소로 유지 불능)

대안 : 소규모 농촌형 보육인증 제도 필요, 충남형 농어촌 보육모델 마련 시급



### 여성

접근성 해소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관련 시설 없는 군단위 많음

질병 : 산부인과 없는 병원 많음(여성 유병율의 60%는 부인과 질병)

문화 : 영화관 없는 군단위 대부분임

마을공동급식 : 미시행 지역이 많음

복지서비스참여자 : 성희롱 사각지대

외국인여성농업노동자 : 성희롱, 성폭력 사각지대

대안 : 접근성 해소(면단위 순회 방문, 빈집개선 외국인 주거지원센터 운영)

## 영역별, 계층별 쟁점들



### 노인

1인가구 증가 : 남성 독립성 강화 복지 지원(생활자립형), 여성(안전복지)

접근성 해소 : 100원 택시 확대 필요

건강 : 예방적 건강 주력(건강리더 등 일상적인 복지 지원 강화)

주거 복지 : 그룹홈(실패)

대안 : 직주근접 복지(거점마을형), 복지교실 확대(인권, 평등의식 교육 필요)



### 청장년

청소년 복지와 아동복지는 거의 미약함 : 전체적인 지원 필요

장애인 복지 : 사각지대임

청장년의 경우 : 복지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음

보편적 복지에서 연금, 보험, 건강, 문화 등의 포괄적 접근은 남성으로 대표됨

재해보험, 국민연금 모두 남성의 가입율이 높음

면단위 행복센터 형태의 복지접근성, 청구형 복지=정보문맹 문제

## 검토할 쟁점들

- 복지 주체
  - 행정 : 고비용- 저효율
  - 민-관 거버넌스 :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 복지대상 : (다양성에 기반한 복지정책 필요)
  - 취약계층 복지에서 복지권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로(어떤 수준까지...)
  - 도덕적 해이에 관한 지적
- 복지의 효과성
  - 최소복지와 최적복지의 구현방안
  -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강화
  - 복지 공급체계의 다원화
- 복지 접근성 : 교통, 의료 접근성 강화(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등)
- 지역특성
  - 노인인구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 복지전달체계의 책임성, 통합성, 전문성 향상(인적 취약, 시설취약 등 고려)

15



감사합니다.



## 2. 농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2차회의 [현장방문]

### 1) 연구모임 2차회의 개요

#### □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10. 19.(금) 09:30 ~ 12:30
- 장 소
  - 서천군 판교면 홍림2리(해바라기마을)
  - 서천군 마서면 여우네도서관
- 주 제 : 농촌복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와 개선 방안 토의
- 참석인원 : 20명(연구모임 회원 10 , 직원과 주민 10)

#### □ 주요내용

- 농촌복지 현장(마을과 공동체 활동 시설)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활동 및 애로사항
- 농촌복지 현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 2) 현장 방문 및 토론 내용

#### □ 마을 현황 설명(요약)

- 서천군 판교면 홍림2리(해바라기마을)
  - 행정의 소규모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공시설을 확충하여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도모함
  - 문화생활 확충을 위해 소규모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음
- 서천군 마서면 여우네도서관
  - 마을 주민들이 어린이들의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도서관을 만들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아이들이 교육과 놀이를 위한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문화 조성

## □ 현장 방문 토론 및 도출 내용

### ○ 회원 토론 내용

- 읍면 중심지활성화 사업 진행시 배후마을의 소규모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향 필요
- 마을의 지속을 위한 주민 복지 관련 정책 및 마을 사업 담당자들의 최소 생활 조건을 맞추는 것이 필요
- 마을단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인구유입 및 정착 유도 필요
- 복지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농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 도출 내용

- 마을, 권역, 읍면 단위에 복지시설 수요 분석을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회원 상호간 합의를 이룸
- 행안부의 읍면 대상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사업과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연계한 읍면 복지 체계 시스템을 위한 시범사업 필요

## □ 현장 활동 사진







## □ 연구모임 활동 언론보도

### 충청투데이

2018년 10월 22일 (월)  
정치 05면

## 농어촌 현장 찾는 충남도의회

복지 지원 실태 파악 차원 목적  
미래 정책·개선방안 중점 진행

충남도의회가 도내 농어촌 복지 지원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현장활동에 나섰다.

도의회 '농촌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양금봉 의원)은 지난 19일 서천군 판교면 해바라기마을과 마서면 여우네 도서관을 찾아 운영 상황과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현장방문은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 연구

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양금봉 의원은 "충남에서 농어촌 지역이 많은 10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지수가 0.5미만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충남도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으로 정착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농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113 X 91 mm



### 충남도의회 농촌복지연구모임 "현장 속으로"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농촌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 의원)은 19일 서천군 판교면 해바라기 마을과 마서면 여우네 도서관을 찾아 운영 상황 및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은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및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금봉 대표는 현장 방문에서 "충남에서 농·어촌 지역이 많은 10개 시·군은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충남도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대표는 "특히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으로 정착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농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연구모임 2차 견학지 내용

## 1

## 해바라기마을(판교면 홍림2리)

## 1) 해바라기마을 개요

- 마을현황
  - 4개 자연마을, 36가구 67명(남36, 여31), 고령화율 49%(33명)
- 마을특성
  - 자연환경은 서천군의 가장 큰 홍림저수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벚꽃길 숲속 산책로, 300년 이상된 느티나무 마을보호수, 나지막한 다랭이 논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게 보존되어 있음
  - 2000년대 이후 귀농귀촌귀향에따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2) 주요 활동

- 충남도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 2014년 현장포럼, 2014년 우수마을, 2015년 선행사업, 2017년 창조적 마을만들기(경관)
-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2015년)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2017년)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2018년)
  - 가공사업 참여인원 : 30명(남12, 여18), 고령자 참여수 60%(18명:남7, 여11)
  - 가공사업 현황 : 농산물가공 사업장(46㎡), 식품제조가공업등록(2017년), 가공시설(해바라기착유기, 들깨착유기, 볶음솥, 튀밥기, 밴드실러 등), 가공생산물(해바라기씨유, 들기름, 웰빙강정(흑미, 들깨, 쌀)
- 주요 사업 성과(가공사업 중심)
  - 해바라기 생산 및 경관조성을 위한 해바라기 공동식재(1.6ha/17년)
  - 해바라기 축제 : 2016년~2018년 제3회 개최 (방문객 : 300명이상/년)
  - 강정체험, 문화바우처 확대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 마을주민의 가공원료곡(해바라기, 쌀, 흑미 등) 생산수매(해바라기4,000원/kg)
  - 60세이상 고령농 노인일자리 창출(18명) 및 주민참여(30명)
    - ※사회복지실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사단법인 서천시니어클럽)
  - 마을어르신 효행사, 마을환경정화 등 다양한 행사 추진

자료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서천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역재단에서 제공한 자료 재정리

## 2

## 여우네도서관

### 1) 설립배경과 목적

- 농촌 어린이들에게 함께 모여 책 읽고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모이는 마을 조성
- 길산권역센터의 20평 공간에 학부모들이 도서관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교육과놀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로 지역공동체문화 조성

### 2) 시설현황

- 개관일 : 2008년 11월 15일
- 시설 현황
  - 규모 및 장서 현황 : 약 20여 평, 총 3천여권 장서 보유
  - 이용인원 : 평일(20여명), 주말(30여명)

### 3) 주요 활동

- 도서관지킴이 : 인근마을 학부모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월1회 회의를 통해 도서관과 관련한 정보 및 현황공유
- 여우네 문화제
  - 연혁 : 2011년 11월 1회 개최를 시작하여 2017년까지 제7회 개최
  - 목적 : 마을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여 ‘도서관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
  - 주요내용: 인형극 공연, 공연마당, 이야기마당, 놀이마당, 여우네장터 먹거리 마당, 대농놀이 어울림 마당



도서관 내부



2011년 제1회 여우네문화제 개최 알림 장면

출처 : 개인 블로그 <http://cafe.daum.net/kilimki>

출처 : 뉴스스토리(<http://www.news-story.co.kr>)

자료: : 여우네도서관 카페의 현황 내용(<http://cafe.daum.net/apoyoune>)과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임

### 3. 농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3차회의(현장방문)

#### 1) 연구모임 3차회의 개요

#####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3. 6.(수) 10:00 ~ 12:00
- 장 소 : 홍성군 홍동면 밝맑도서관, 우리동네의원(의료생협)
- 주 제 : 농촌 마을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현장방문
- 참석인원 : 21명(연구모임 회원 11, 의료생협 3, 직원 등 기타 7)

##### □ 주요내용

- [발표] 농촌복지 마을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 최문철 사무국장(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농촌형 마을 복지와 돌봄 모델을 준비하는 의료생협의 활동과 과제”
- [현장방문]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우리동네의원'
- [토론] 농촌복지 실현을 위한 주민 공동체 활동 방안 토론

#### 2) 현장 방문 및 토론 내용

##### □ 발표 내용(요약)

-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은 2015년 5월 의료생협 창립총회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홍동면 금평리의 작은 의원으로 홍성읍과 홍동면, 장곡면 일대의 조합원들과 함께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음
-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조합과 마을 주치의라는 기본개념으로 지역 주민의 삶을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마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 2018년 부터는 노인돌봄 프로그램 개설, 마을복지위원회 구성,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마을 주민들과 공간들을 연결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낮돌봄 프로그램 시범적 운영하고 있음
- 의료생협을 통해 마을내 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지속적인 활동 여부를 고민 중임

- 흥성우리마을의료생협의 확산을 위해서는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빈 구석을 채우는 협동의 경험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역은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이 필요함

## □ 토론 및 도출 내용

### ○ 회원 토론 내용

- 주민이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 복지영역을 개척해서 행정에 의지하지 않는 주민중심 체계 구축 필요
-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복지가 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지자체는 큰 규모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구조임.
- 읍면동으로 자치단체 권한의 일부 이양과 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와 행정이 융복합되어 '삶의 질'의 변화가 이러날 수 있도록 해야함
- 읍면동 정책들의 통합을 통해 전반적인 영역을 지역 및 주민 맞춤형정책을 펴면 흥동사례처럼 면단위 모델 및 성공사례가 확산될 것임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들에게 시급한 사업들 중심으로 진행하여 공동체 활성화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예산 지원 대비 효과가 상승할 수 있음
- 보건지소와 마을을 연계하여 사회적농업을 통한 농촌복지 확충 및 인구유입 도모 필요
- 행정이 주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모아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지원조직과 현장인력 확충이 필요
- 소규모 면단위 활동을 위해서는 행정 일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화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행정조직 개편 등 논의 필요

### ○ 도출 내용

- 농촌복지 체계구축을 위한 행정지원체계의 개편 및 관련 조례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 필요
- 농촌복지 실현은 행정지원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융복합화된 농촌복지의 거점을 육성해야 복지체계 구축 가능
- 특히 읍면단위에서 복지예산을 융복합하여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다기능 복지센터 구축
- 사회적농업 도입을 통한 농촌복지 확충과 인구유입을 농촌복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 농촌복지의 현실과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 또는 지원 체계 구축 모색

## □ 현장 활동 사진



## □ 연구모임 활동 언론보도

### 중도일보

2019년 03월 06일 (수)  
종합

## 충남도의회 "농어촌 복지 문제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서"

'충남도의회 농촌복지 체계구축 위한 연구모임' 활동 실시  
충남 홍성군 홍동면 소재 '우리마을의료생협' 및 '밝맑도서관' 방문

유희성 기자



충남도의회는 6일 도내 농어촌 복지 지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3차회의 개최 및 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농촌복지체계구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 의원·서천2)'은 이날 홍성군 홍동면에 소재한 우리마을의료생협 '우리동네의원'과 '밝맑도서관'을 찾아 운영상황 청취 후 제3차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최문철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우리동네의원 사무국장으로부터 생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운영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구모임 대표인 양금봉 의원(서천2)은 "홍성군 홍동면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의료생협을 만들어 복지에서 중요한 부분인 의료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인 것 같다"면서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지원정책을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실시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금이 연구모임 회원은 "의료생협을 3년간 유지하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농촌은 마을단위의 지역화로 사업이 이뤄져야 사람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농어촌 복지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우리동네의원과 밝맑도서관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 □ 연구모임 3차 발표 내용

## 이웃과 마을이 서로 돌보는 건강한 마을공동체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사무국장 최문철

**의료생협이란**, 마을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우리가족과 이웃의 건강,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협동조합입니다. 마을주민들이 협동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보건예방활동, 건강증진활동,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주민 공동체를 지향하는 자율적인 주민자치조직입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은 이름처럼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에 작은 의원을 사업소로 두고, 홍성읍과 홍동면, 장곡면 일대에 사는 조합원들과 함께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처음 시작은 생활의학배움터라는 학습모임이었습니다.

당시 옆 동네 공중보건의로 온 (현재 우리동네의원의 원장인) 의사와 동네 주민들이 모여<응급처치와 병원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사 선생님>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고, <면역력슈퍼처방전> 책을 함께 읽는 모임이었지요. 생활의학배움터를 시작한 2011년 늦겨울부터 2015년 5월 의료생협 창립총회까지 만 4년 동안 10번의 열린 모임과 34번의 크고 작은 건강모임, 71번의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간의 활동들은, 덮어두었던 필요를 꺼내서 이야기하고, 흩어져있었던 염원들을 모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차근차근 쌓인 배움과 관계들 덕분에, 그동안 간절하게 필요했지만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작은 먼단위에서 의료생협을 창립하고 동네의원을 여는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의 역사

준비기간의 활동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2012년에는 4개월간 주말마다 건강상담소를 열었습니다. ‘협동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우리마을에 의료생협이 생긴다면’이라는 주제로 농민의원으로 유명한 안성의료생협의 사례를 듣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의료생협연합회(지금은 의료사회협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건강공동체 ‘의료생협이야기’, ‘우리가 원하는 의료생협은?’ 주제로 열린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EBS 다큐프라임\_행복의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의료편>을 함께 보면서, 의사가 온천에서 쉬라는 휴양처방을 내리면 공공재정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봄에는 건강한 다이어트 모임 <진.살.구 8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장곡면, 홍동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몸에, 아주 천천히 독이 쌓이고 있다>는 책을 함께 읽으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년에는 건강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로 ‘더 이상 작심삼일은 없다. 건강실천단’를 꾸려서 겨울동안 집중적으로 건강증진 활동을 함께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한약채식여행>을 쓴 이현주 한약사를 모시고 “제철채식이 보약입니다”라는 건강강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의료생협을 여는 과정은 크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모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활동과 협동조합 창립 준비를 병행하는 활동이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합을 창립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실행모임을 꾸려서 다른 의료생협의 사례를 살펴보고, 설립을 위한 자료를 챙기고, 청사진을 그리며 창립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돌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건강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하고, “농촌형 의료생협, 몸+마음+관계의 건강, 아픈 사람과 관계가 마을의 중심”이라는 중요한 열쇳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원을 열게 된다면 어디에 개원하고, 조직의 모양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가 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사업성을 생각하면 읍이 낮고, 개원 과정의 편리성을 생각하면 개인사업자로 의원을 열고 지역조직이 뒷받침하는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도 수월한 방법이었습니다. 의원의 위치는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여 읍이 아니라 면소재지에 열기로 했습니다. 개원 방식은 어떤 이유에서든 의사가 일을 그만하게 되면 아무 것도 지역에 남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원보다는 조합이 낫다고 판단하여 협동조합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오랜 논의와 모임을 거쳐 2014년 4월, 발기인 30명이 모여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채승병, 박완, 주형로, 주정민 4인의 공동대표가 세워지고 실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실무를 준비하던 강영실, 최문철은 채승병 공동대표와 함께 53년 역사를 가진 일본 미나미의료생협에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7만 3천 조합원과 7층짜리 종합병원 규모에 놀라고, 지역사회와 밀착된 모습에 크게 놀랐습니다.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을 위한 크고 작은 다기능 복합 돌봄시설들을 돌아보면서 ‘모두가 달라서 모두가 좋다’는 가치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의료생협을 만들겠다는 조합의 의지가 사업소 곳곳에 고스란히 배어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연수를 마치면서 “협동이면 못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협동뿐이구나! 조합원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소회를 밝혀주신 채승병 공동대표는 이후에 의료생협의 이사장님이 되었지요.

발기인대회를 하고 1년의 준비를 더 거친 후 2015년 5월, 드디어 의료생협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325명 조합원에 4,100만원 출자금으로 출발했지요. (3년이 지난 최근 2018년 11월에는 조합원 562명에 출자금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사진은 농민과 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 오랜 준비기간을 다져온 덕분에 동네의원은 3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사들이 (실제로) 팔을 걷어 부치고 의원공사에 나선 덕분이기도 하지요. 같은 해 8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와 약을 담당하고, 물리치료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우리동네의원이 금평리 마을회관 앞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쯤에서 조합원들이 공들여 다듬고, 창립총회에서 함께 낭독한 조합 정관의 전문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의료생협을 만든 이유와 지속해야 할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작은 면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일찍부터 협동의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고민하였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큰 걸림돌이다. 전문가, 자본 중심의 기존 의료 체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한 삶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은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을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마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병의 치료를 넘어 몸, 마음, 관계의 평안을 돕겠습니다.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인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하겠습니다.

의료생협 창립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마을의 어른이신 홍순명 선생님께서는, “예전부터 한 마을이 잘 되려면 교사와 농민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생활의 바탕이 되는 농업과 새로운 세대를 기르는 교육에 더불어 전 세대를 보듬는 의료의 지속가능한 마을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말씀이시겠지요. 돌아보면 홍동 장곡 지역주민들은 농업과 교육의 난제들을 협동으로 풀어낸 크고 작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 덕분에 남아있던 큰 숙제인 의료와 복지문제도 협동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의원을 연 다음 해인 2016년의 목표는 ‘천 명이 모이는 조합’과 ‘천명을 돌보는 의원’이었습니다. 의원 차트번호 천 번을 넘겨보자, 이사회와 건강교실, 조합원 소모임의 누적인원을 다 더해서 1년 동안 1,000명이 모이는 조합을 만들어보자는 목표였습니다. 도시 기준으로 보면 매우 소박한 목표겠지만, 농촌에서 천 명이 모이고, 천 명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조합모임 누적인원 975명에, 동네의원 차트번호 1122번으로 겨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참고로 당시 흥동면 인구는 3,500여명으로 기억합니다.

2017년 목표는 ‘두 바퀴로 가는 의료생협’이었습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조합과 마을 주치의라는 기본에 충실한 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2018년 목표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료생협, 주치의로 한 걸음 다가가는 동네의원’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마을복지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봄에는 (동네마실방 뜰에서 맥주를 마실 때마다 적립되는) 마을 기금의 도움을 받아 어르신 문화교실을 열었고, 가을에는 공익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마을 주민들과 공간들을 연결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낮돌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마을복지위원회에서는 농촌복지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자료, 책, 기사들을 살펴보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연구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지역 복지관계자와 면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연결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낭비와 사각지대는 없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료생협이 우리 지역의 의료복지 문제를 직접 나서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역주민의 필요를 자세하게 살피고, 다양한 자원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정책과 시장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챙겨야 한다는 중요한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천의 하나로 노인 주민들의 필요를 살펴볼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었고, 이번 겨울 농한기동안 지역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동네의원과의 의료생협의 의미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가까이 지내는 동네주치의가 있다면 보다전인적인 진찰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싸고 어려운 검사를 받기 전에, 일상을 살펴서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낼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요. 마찬가지로 일상을 보살펴서 지속적인치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1차 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네주치의를 통하면 과잉진료 대신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정진료, 가까운 진료만큼 중요한 것이 평소에 건강을 증진하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활동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혼자서는 사방팔방의 일을 다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돌보는 조합원들의 협동이 있다면 그만큼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관계를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치의와 좋은 이웃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허리건강실천단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동네의원 물리치료사와 동네 할머니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여농센터에서 만나 허리운동을 하는 모임이지요. “혼자서는 안 돼. 운동은 무조건 같이 모여서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은 함께 운동을 하면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다지는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돈을 주어도 살 수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공유되었던 좋은 시절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아마도 자조자립과 상부상조의 정신이 살아있는 협동조합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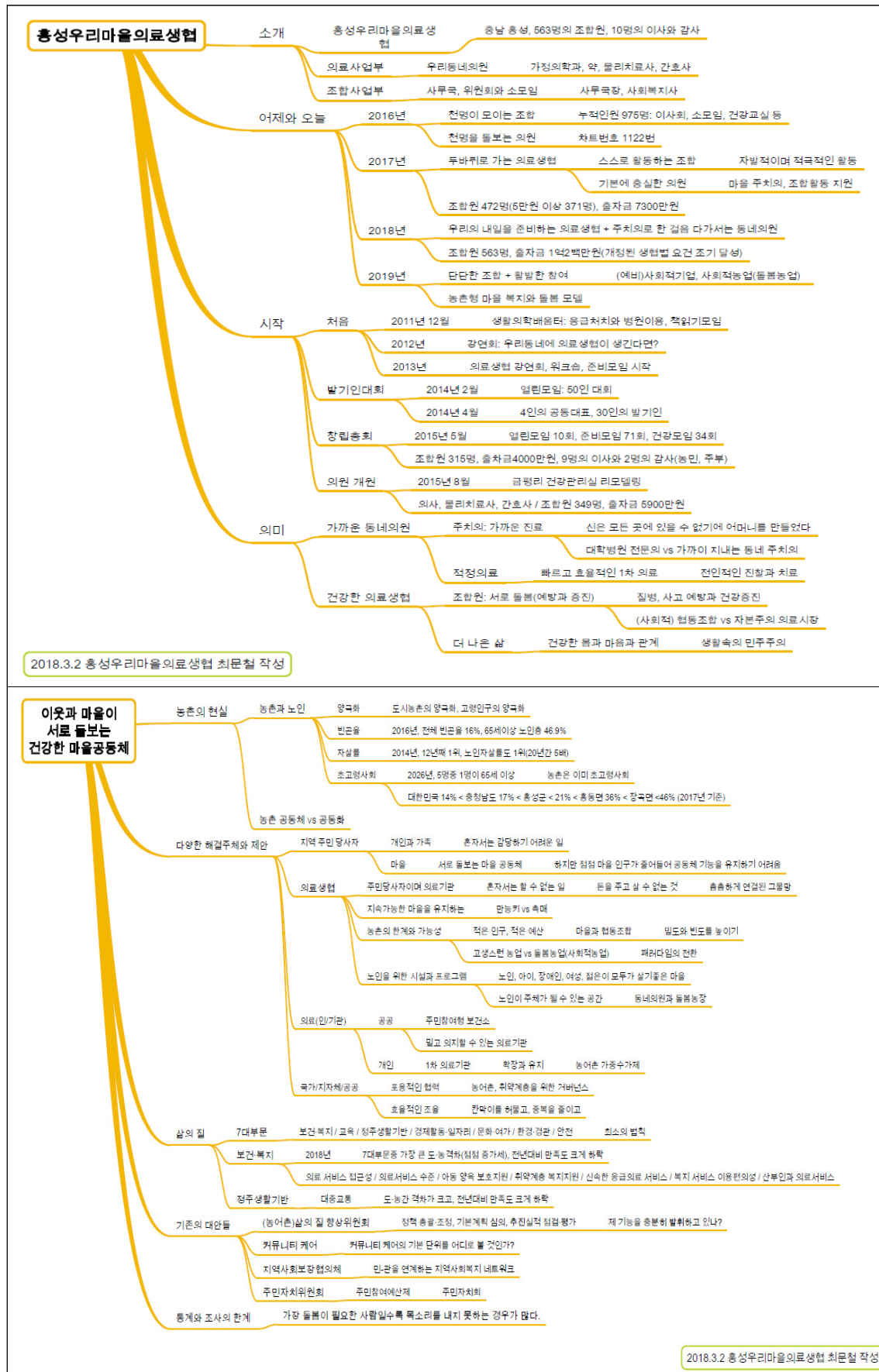
### 농촌의 내일과 의료생협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이 점점 더 큰 화두가 되어가는 것은, 실은 우리의 마을들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은 실제로 소멸의 과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홍동면은 비교적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혁신하면서 학생 수가 부쩍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근 지역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령인구의 양극화, 빈곤율, 자살률은 어떨까요? 젊어서 가난한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가난합니다. 2016년의 전체 빈곤율은 16%인데,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6.9%입니다. 충남의 노인자살률은 몇 년째 1위인지도 모를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힘을 모아 의료생협을 만들었지만, 스러져가는 농촌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거대한 협동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당사자들의 소소한 협동에 부응해서 지역 사회와 지자체가 칸막이를 허물고 협동하지 않으면 농촌 공동체가 아니라 농촌 공동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은 여성과 아이는 물론이고 젊은이를 비롯한 모든주민들에게도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지요. 살기 좋은 마을이란 어떤 마을일까요? 의료와 교육, 문화, 복지,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 있는 물통에서, 삶의 질이라는 수위는 최소의 법칙에따라 가장 낮은 영역이 결정하게 됩니다. 4년 전 창립총회에서 낭독한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인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하겠습니다.' 라는 정관 전문의 마지막 문장을 기억합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이 지속가능한 마을을 담보하는 만능키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살만한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낮은 수위를 높여주고 보살피는 일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협동과 참여의 손길을,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는 응원과 지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최문철. 동네에서 털보 또는 보루라고 불린다. 충남 홍성 풀무학교 생태농업전공부에서 농사와 마을살이를 배우다 이 마을에 눌러 앉았다. 꿈이자라는뜰에서 마을교사와 농장일꾼으로 일하다가,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사무국장 일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두 집 살림을 시작했다. 지난 9년 동안 살피온 장애와 농업의 연결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농업!농촌!농민과 돌봄의 연결을 자세히 살피보려고 한다.

+ 이 글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펴낸 『마을독본』 4호에 실린 글입니다. 4호의 특집주제는 “마을공동체복지 : 요람에서 무덤까지, 농촌복지의 길” 였습니다



## 4. 농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4차회의 (토론회)

### 1) 연구모임 4차회의 개요

#### □ 개최 개요

- 일 시 : 8. 26(월) 15:00 ~ 18:00
- 장 소 : 서천군 문예의전당(소강당)
- 주 제 :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토론회
- 참석인원 : 130명(연구모임 회원 11,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 □ 주요내용

- [주제발표 1] : 사회복지서비스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농촌복지
  - 조미형 연구위원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 [주제발표 2] : 읍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복지 추진 사례
  - 이병도 회장(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
- [지정 토론]
  - 농촌문제의 본질과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 조동준(서천군의회 의장)
  -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김윤희(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
  - 수요자 중심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Community Care 사업: 김재연(서천군 보건소장)
  - 읍·면단위 정책의 융복합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구자인(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 [자유 토론] 농촌복지 실현과 농촌복지 체계 구축 방안

### 2) 발표 및 토론 내용

#### □ 발표 내용

- [주제발표 1] : 사회복지서비스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농촌복지
  - 기술발전에 따라 생활 편리해졌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귀농귀촌, 다문화 등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통합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회복지의 새로운 이슈는 사람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바우처 서비스 영역 확대와 서비스 구매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조가 변화되면서 서비스 구입에 따른 마을의 관계 재조정이 일어나고 많은 서비스에 행복도는 높아지지 않음
  - 서비스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와 공동체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해야함
  - 지방소멸에 대한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자치와 복지를 연계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신뢰 관계 기반 주민 중심의 자기결정권을 갖고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래의 가치를 찾기 힘들
  - 다양한 공동체가 지향점과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수직적인 체계가 강해 협업이 잘 안되면서 수요자인 주민들에게는 만족도가 낮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 공공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을 도입하여 사회복지 활동과 공동체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 네트워크 방법으로 마을기업의 활동을 통해 복지활동하고 일자리창출하는 것은 이상적인 모델로 복지활동가로서의 역할. 복지기관의 본래 기능과 일맥상통하기도 함
  - 농촌복지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농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도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공동체, 자치라는 장점을 살린 복지모델이 필요함
- [주제발표 2] : 읍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복지 추진 사례
- 마산면은 서천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며, 특히 12세 이하가 96명으로 학교 통폐합 논의가 있는 곳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통폐합보다는 시골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어린이에게는 축복이며, 특혜라는 인식 전환을 하도록 하기위해 도서관 만들어서 인문학 교육. 마을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자치회 복지분과 사업으로 특산물 이용해서 29개 마을을 방문하는 등 우리지역의 어르신들은 우리가 케어하고 있음
  - 독거노인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어있는 회관에서 진행하고 있음. 마을회관을 어르신 케어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은 봉사적인 것으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음. 행정에서 전문적인 마을 파견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해 주길 바람
  -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지원이 지속성이 강하다는 점을 이해해주고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 토론 및 도출 내용

### ○ 지정 토론 내용(요약)

- 조동준(서천군의회 의장) “농촌문제의 본질과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
  - 서천 사회복지예산 26.9%정도이며 절반이 노인복지 관련임. 즉 서천에서 농촌복지는 노인복지 중심으로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하고 있음.
  - 서천은 초고령화된 지역으로 중앙정부의 문제의식과 농촌의 현실은 괴리가 있음. 이런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복지를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얼마만큼 성장시킬 것인가는 회의적임.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 여성, 다문화 등이 참여하는 통합적 복지모델이 필요함.
  - 또한 농촌복지는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만 현재의 복지체계는 농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촌복지 서비스가 필요함
- 김윤호(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충남의 10개 시군이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서천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의료, 보육, 복지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도에서는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 시행 중임. 총 사업비 14억 원에 20~73세 이하를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공동급식시설 지원을 통해 시설 리모델링 및 확충뿐만 아니라 급식과 복지 기능이 복합된 거점 공간으로 육성 중에 있음
  - 하지만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동체 보완해주는 것도 필요함. 행정과 공동체가 협력하여 촘촘한 복지정책이 추진되면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진정한 복지시스템이 구축될 것임
- 김재연 (서천군 보건소장) “수요자 중심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Community Care 사업”
  - 초고령화 지역인 서천군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면단위로 세분화 시켜 수요자 중심이며, 지역 사회의 자원이 참여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서천은 전국단위에서 복지분야 운영 최우수 지역이지만, 노인복지와 농촌복지를 어떻게 통합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실정임

-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읍·면단위 정책의 융복합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체계를 구축해야하지만 행정과 민간의 칸막이 구조에서 주민들의 수요 반영이 어려워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읍면 중심의 자치구조 개선을 통해 규모가 큰 지방자치체를 보완하고 주민과 정책의 거리를 좁혀 주민들의 공동체 및 복지관련 정책 수요가 해소 될 수 있음
  - 읍면 지역사회의 대표 조직으로 ‘주민자치회’를 육성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주민자치 중심으로 정책 융복합을 통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예산을 확충해주는 것이 필요함
  - 지역내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 산하 사업단을 두고 주민자치회는 의사결정 조직역할, 사업단은 사업 집행 중심으로 사람과 조직을 육성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복지분야의 수요증가로 복지관련 예산의 증가와 행정의 기간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성을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민간 중심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활동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 자유 토론 내용

### -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 (마서면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질문) 분과는 홍보분과(마을과 사람 홍보), 교육분과(마을교육), 청년미래농업분과, 복지분과, 체육문화분과(생활체육 지원)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음
- (면사무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 복지분과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역할 중복 문제) 면사무소와는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복지분과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이 겹치는 것은 많아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흡수하여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 읍면 단위의 복지분야 활동 활성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 또는 간사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좋겠음.

- 자유토론 및 지정토론자 답변

- 읍면의 복지거점을 위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주민자치회가 내적 역량을 갖고, 실무자들이 지역 자원을 연결하고, 자기계발을 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행정에서 교육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돌봄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하향식 복지가 아닌 수요자가 참여하고 선택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함. 마을 속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행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사회복지 차원에서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는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시점임. 농촌에서는 복지관 중심보다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더불어 사회복지사를 읍면단위로 배치하고, 마을에는 마을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근거가 필요함
- 마을복지사는 지역주민들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와 협의과정, 기초 지자체의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시범사업으로라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마을공동체가 지역복지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케어라는 단어보다 서포트라는 용어가 맞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듦. 현재의 복지관이 읍면 전체를 관할할 수 없으므로 관련 단체들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도출 내용

- 농촌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수요자가 참여하고 선택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함. 마을 주민 참여 유도과 행정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복지체계 구축 필요
-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한 보건지소의 역할(전담 간호사 확충)을 강화하고, 읍면단위에 사회복지사 배치, 마을단위에는 마을복지사 양성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와 민관협력 기반의 복지체계 구축 필요
- 마을복지사 활성화를 위한 마을복지 전문가 양성과정을 시범사업으로라도 시행하는 것도 필요
- 농촌복지 체계를 구축을 위한 도차원에서 조례와 인건비 및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함. 다만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것도 필요

□ 현장 활동 사진



□ 연구모임 활동 언론보도

충청투데이

2019년 08월 27일 (화)

정치 05면

## 충남도의회 농촌 복지체계 구축 토론회

충남도의회는 26일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서 '농촌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이 주관했으며 연구모임 대표인 양금봉 의원(서천2)이 좌장을, 조미형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위원과 이병도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조동준 서천군의 회 의장과 김윤호 도 농업정책과장, 김재연 서천군보건소장, 구자인 충

남만들기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농촌의 복지 현황과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해 논의했으며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금봉 의원은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오래 전 활력을 잃으면서 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113 X 76 mm

대전투데이

2019년 08월 27일 (화)

정치 02면

## 충남도의회 '농촌복지 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

###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위한 복지실현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26일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서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각계각층, 도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대표인 양금봉 의원(서천2)이 좌장을, 협동조합 '함께하는'의 조미형 연구위원과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 이병도 회장이 발제를 맡았고 서천군의 회 조동준 의장, 충남도 김윤호 농업 정책과장, 서천군 김재연 보건소장, 충남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농촌의

복지 현황과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해 토론했으며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금봉 의원은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오래 전 활력을 잃으면서 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농촌 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연구모임을 꾸리고 토론회 개최, 농촌 현장 방문에 이어 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149 X 73 mm



## 충청신문

2019년 08월 27일 (화)  
종합 04면



### 충남도의회, 농촌 복지 체계 구축 위한 토론회

충남도의회는 26일 서천군 문예의전당에서 '농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농촌 복지 현황과 마을공동체 활동 상황을 공유하며 '생기있는 농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진웅 기자 <사진=충남도의회제공>

112 X 83 mm

## 서울일보

2019년 08월 27일 (화)  
지역 13면

### 충남도의회,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 모색

충남도의회는 26일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서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각계각층, 도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대표인 양금봉 의원(서천2)이 좌장을, 협동조합 '함께하는'의 조미

형 연구위원과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 이병도 회장이 발제를 맡았고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장, 충남도 김윤호 농업정책과장, 서천군 김재연 보건소장, 충남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자리에서 농촌의 복지 현황과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해 토론하며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진서기자

115 X 57 mm

- 연구모임 4차 발표 내용1 : 조미형 연구위원(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사회복지서비스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농촌복지”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토론회 4차(19.8.26)

## 사회복지서비스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농촌복지

2019.8.26.  
조미형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 우리 일상과 삶의 변화 & 다양한 사회문제 등장

- ▶ 기술 발전과 함께, 일상생활의 편리함 & 복잡해짐
- ▶ 다양한 사회문제의 등장: 신사회위험
  - ▶ 가족 해체, 저출산, 고령화, 근로빈곤
  - ▶ 돌봄,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 ▶ 새로운 유입하는 이들: 다문화, 이주노동자, 귀농귀촌 등
- ▶ 사람 사이의 ‘관계’ 맺는 방식 변화
  - ▶ 신뢰, 상호호혜 vs 구매와 소비



##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속에서 마을공동체 강조

-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의 역할, 전문성
  - ▶ 제공자 vs 수혜자/이용자
- ▶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지속가능
  - ▶ 제공자이면서 이용자(?)
- ▶ 공공은 일상생활의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 ▶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용하는(해야만 하는) 수많은 서비스들
  - ▶ 돌봄이 사회적 영역으로 나옴: 어린이집, 요양서비스 등
- ▶ 자치 + 복지
  - ▶ 왜 필요한가? 가능한가?

## 사회복지실천: 사람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문성

- ▶ ‘사회’(social): 인간관계
  - ▶ 사회 구성원들간의 협력적이고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함
- ▶ 사회복지실천의 출발: 클라이언트와 관계(라포) 형성
  - ▶ 주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
- ▶ 자기결정권
  - ▶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문제에 대한 이해,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전제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의미함
  - ▶ 윤리적 딜레마
- ▶ ‘공공’ 사례관리제도(희망복지지원단) 도입이 실천현장에 미친 영향

## 마을공동체활동의 모습

- ▶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 ▶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활동
  - ▶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
- ▶ 공동체 안에서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활동

## 마을공동체사업과 사회복지기관의 만남

- ▶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점
  - ▶ 예: 독거노인 말벗, 반찬 나눔, 아동 급식 지원 등
- ▶ 마을기업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공급자가 될 수 있음
  - ▶ 아동 학습 지원, 급식 지원 등 제공
- ▶ 사회복지기관의 주민조직화사업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날 수 있음
  - ▶ 마을공동체가 원하는 활동 지원: 협동조합 운영, 공모사업 신청 지원 등

## 마을주민과 사회복지기관의 만남

- ▶ 주민이 원하는 활동 vs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
  - ▶ 기관: 전문성, 수혜자 입장 고려
  - ▶ 주민의 [봉사]활동 vs 기관의 서비스
- ▶ 지역사회 복지기관 사업 계획 수립에 주민 의견 반영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지역사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이 보는 이웃들의 삶 vs 공공이나 민간기관에서 보는 주민의 삶

## 사회복지실천과 마을공동체활동

- ▶ 돌봄이 가정 안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나옴
  -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 공동육아, 돌봄공동체 vs 전문서비스로서의 돌봄
- ▶ 지역사회기반 돌봄에 관심: 커뮤니티케어

## 마을공동체활동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실현: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서비스 틀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참여
- ▶ 상충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 서비스 질 향상
  - ▶ 이용자: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
  - ▶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자리 질에 대한 만족
- ▶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 ▶ 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제공자 조정자

## 그리고 농촌복지

- ▶ 두 가지 측면
  - ▶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국민으로서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 ▶ ‘농촌’에 살기에 더 필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있다
- ▶ 농촌형 서비스 전달체계
  - ▶ 마을을 통한, 자치와 복지가 만나는, 지역사회기반... 등이 지향하는 가치 실현
- ▶ 농촌형 돌봄 모델
  - ▶ 농업 활동과 농촌지역의 특성 반영





- 연구모임 4차 발표 내용 2 : 이병도 회장(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  
‘읍·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복지추진 사례’



## 마산면 주민자치회

- 2016년 8월 주민자치위원회 발족
- 2018년 3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
- 2018년 11월 발대식
- 5개 분과 35명 위원 활동



## 복지란?

-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
- > 이것을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일들

### ◆ 주민자치회 발대식('18. 11. 29)



## ◆ 물버들 마을축제('18. 11. 29)

**우리 마산면**은 봉산리와 수려함을 자랑하며 비스듬한 산과 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풍요로운 물과 푸른 초목,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항상 봄처럼 아름답습니다.

**마산초등학교**는 1973년 개교하여 현재까지 45년간의 교육열정을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 9학년 3학급, 48명의 우리 아이들이 다닙니다.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2018년 12월에 총합동 주민자치회 시정사업에 선정되어, 10월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산면을 위한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산면의 공약과 계획을 세우고 3대 달리는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물버들 마을축제

학교와 마을이 하나되는 축제에 초대합니다.

일시: '18. 11. 29(목) 13:00~  
장소: 마산면 문화체육소

주관: 마산초등학교, 마산면 주민자치회

**1부 주민자치회 발대식** 오후 1시~

| 순서 | 내용                   |
|----|----------------------|
| 1  | 마을 사랑날이 오로남문         |
| 2  | 계천선언 • 국민연대 • 해국가 제창 |
| 3  |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 자치위원 소개 |
| 4  | 주민자치회 인사발령 • 내빈축사    |
| 5  | 시무제 거행식 • 폐회선언       |

**2부 공연** 오후 1시 30분~ (시정: 6학년 김문호, 권태연)

| 종목 | 제목     | 참가자                     |
|----|--------|-------------------------|
| 1  | 무용발레   | 통통 뛰는 멋진 소리 1~4학년       |
| 2  | 연극     | 대기대지상행진 5~6학년           |
| 3  | 난타     | 귀여운 한사슴의 난타 유치원         |
| 4  | 댄스     | 산노개 멋지게 3~4학년           |
| 5  | 발레     | 봄부 놀부 5~6학년             |
| 6  | 악기인 줄리 | 마음은 뛰놀고 이별할 줄은 못해 3~4학년 |
| 7  | 연극     | 피리소 3~4학년               |
| 8  | 댄스     | 장미꽃 5~6학년               |
| 9  | 연극     | 발우현 1~2학년               |
| 10 | 연주회 노래 | 오카리나 3곡/무용발레 2곡 시정선생님들  |
| 11 | 노래     | 반드공연 2곡 시정선생님들          |
| 12 | 합창     | 별 화를 합창단                |

**3부 야외체험행사** 오후 1시 30분~

3부 시간에 식당 및 야외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공개)

장미꽃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꽃을 피우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입니다.

장미꽃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꽃을 피우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입니다.

장미꽃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꽃을 피우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입니다.

## ◆ 물버들 마을축제 -합창 및 공연





- 합창 및 공연



- 야외행사



## - 각종 먹거리



## ◆ 문해교실 지원사업 - 종업식('18.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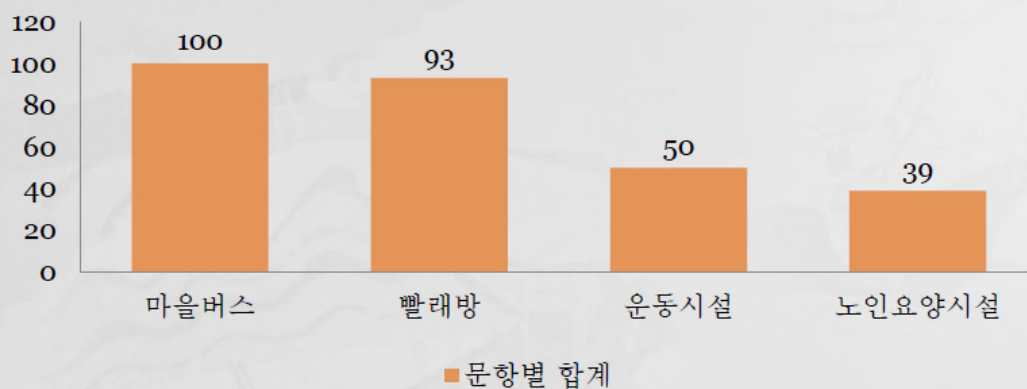
◆ 주민총회('19. 1. 24)



## ◆ 계란안부사업 ('19. 1월 중)



## Q. 우리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기타

- 목욕탕:11, 회관내 세탁기,가스렌지:6, 청소원요청:5, CCTV:5
- 마을길 재포장:4, 행복택시:2, 정류장부스:2, 노인회 유지비 인상:2



◆ 마을홍보팜플렛('19. 1월 중)

[illegible]

◆ 3.1절 정신 계승 사업('19. 3. 12)



◆ 척사대회('19. 3. 29)



◆ 마을학교사업('19. 3월~12월)





### ◆ 블루베리 공동육묘 사업('19. 4월~12월)



### ◆ 외국인 노동자 위로 사업('19. 6월 중)



## ◆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19. 6월~12월)



## 물버들 마을 도서관

- 2017년 11월 학부모 중심 마을교육공동체 발족
- 7개월 동안 매주 모여 회의
- 마을교사 발굴, 각종 교육 시작
- 2018년 5월 31일 도서관 개관





## - 텀어빵은 사랑을 싣고~





- 지역문화탐방



- 독서토론



- 드론교육



- 목공





— 우리 마을 책 만들기



— 생태교육



— 가치지음



◆ 물벼들 마을도서관 개관식 ('19. 5. 31)



## 모두가 행복한 마산을 꿈꾸며...

- 고령화, 인구감소, 봉사자(일꾼) 부족
- 귀농, 귀촌인 중 봉사자 발굴이 과제
- 한 사람의 헌신자 필요
-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꿈꾸며...



- [지정 토론] 자료 중 김재연 (서천군 보건소장) “수요자 중심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Community Care 사업”

- 수요자 중심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Community Care 사업**

김 재 연  
서천군 보건소장

-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서천형 Community Care 사업이란 ?**

- 요즘 어르신들의 로망인 “자기 집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받고싶”을 보장하기 위해 읍·면,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주민 등이 모여 민·관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해결 하려는 노력**을 통해 건강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사업 모형이라 요약 할 수가 있음.
- 결과적으로는  
모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모형을 개발 및 추진**으로  
**“행복한 군민! 건강한 서천”을 실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①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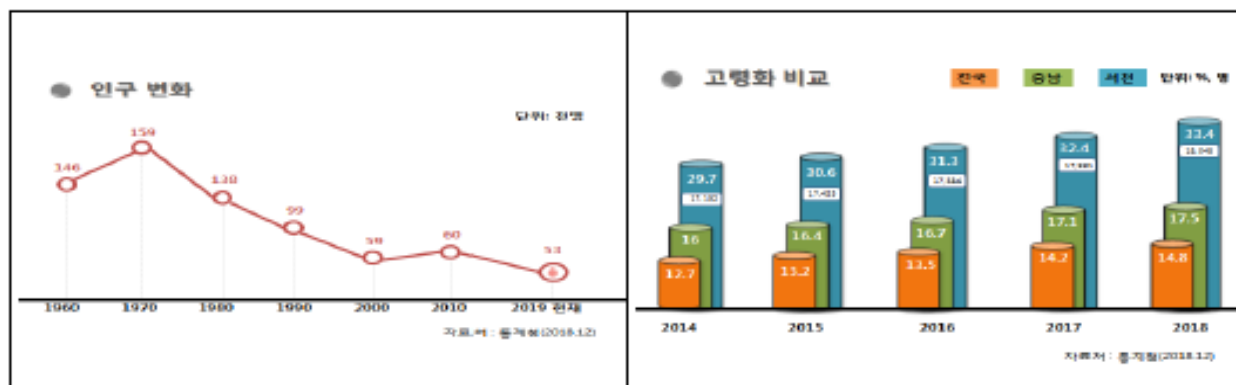
- 저 출산·초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 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 건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집중적 지역 사회 케어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
- 초 고령사회로 갈수록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지역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 서천군 의료 환경은 서천·장항읍, 한산, 비인면을 제외한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의 부재로 보건지소가 진료와 함께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그 간 본소 중심의 사업수행에서 읍·면 지역에 맞는 보건지소 현장 중심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행정과 주민자치회,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주민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우리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돌봄의 모형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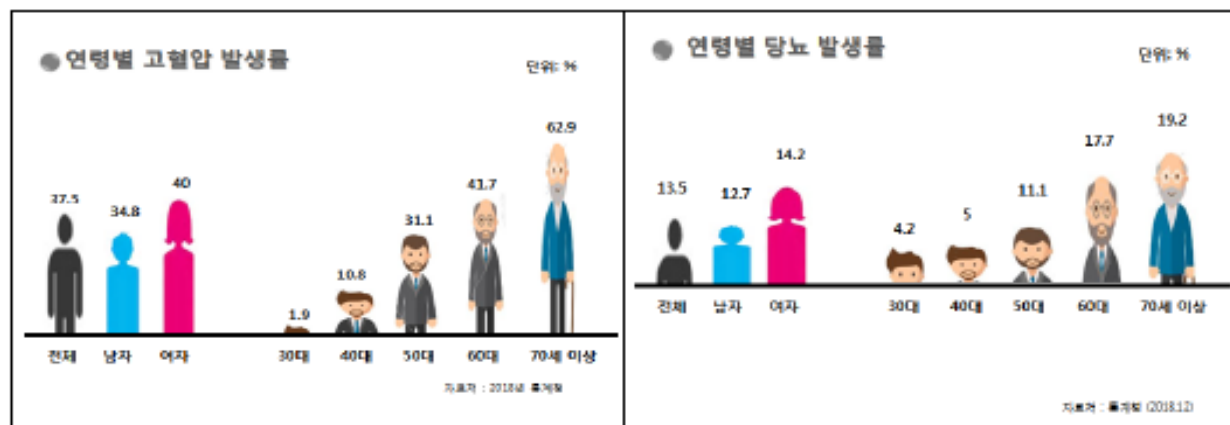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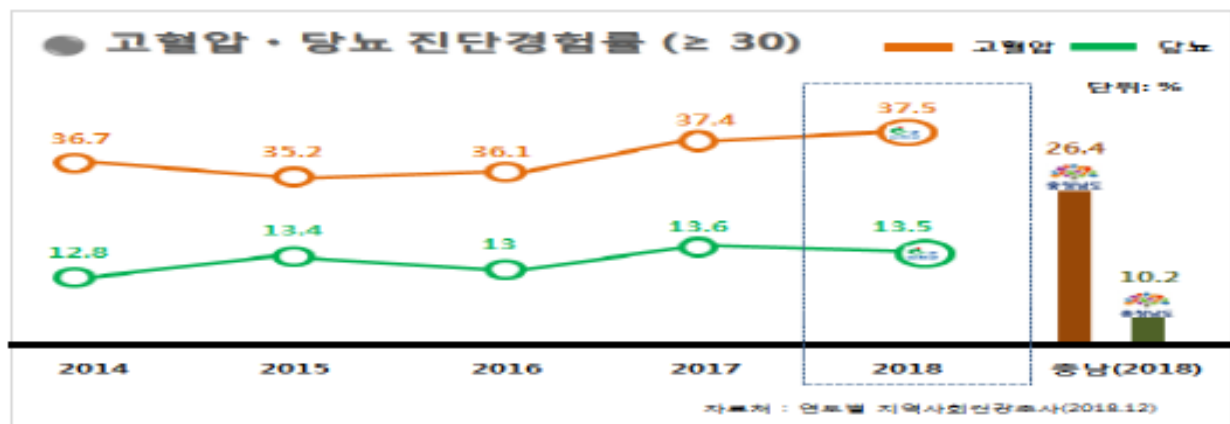
## □ 일반현황

### 가. 저출산 및 초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 서천군 전체 인구 53,922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18,048명 노인인구 비율 서천 33.5% > 충남 17.5% > 전국 14.7%로 충남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
-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총 인구 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33.5% 차지  
→ 2003년(65세이상 노인인구 20%) 부터 초고령화 사회진입
-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주민 평균 나이가 51.6세로 가장 높아 극심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험’ 단계 진입
- 1946 ~ 1965년생 베이비부머 세대 (54세~ 73세)가 2020년 노인기에 진입  
서천군 전체 인구의 19,673명 (36.4%) 차지
  - 은퇴 후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노인층 노후준비 부족
  - 사회복지비용 증가, 기대수명 연장 등 노후의 삶에 질에 대한 욕구 증대
  -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회참여 확대를 야기하고 있음



- 높은 만성질환자 유병률 및 사망률, 노인 평균 2.6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두 가지 이상 약제 복용을 보임
  - 고혈압 유병률 서천군 37.4% > 충남 27.5% > 전국 26.9%
  - 당뇨 유병률 서천군 13.6% > 충남 11.1% > 전국 10.4%로 전국 1위 유병률 보이며 해마다 증가 추세임.
  - 높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 고혈압 사망률 서천 9.6% > 충남 5.6% > 전국 5.4%
    - 당뇨병 사망률전국 11.3% > 서천 8.8% > 충남 8.6%



- 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민간 및 공공)이 활동하지만 조직 간 연계·협력체계 부족
-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자원봉사단체 등 주민으로 구성된 다양한 민간단체 활동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공급체계
  - 복지분야의 자발적 지역사회 활동은 활발하지만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분야는 주민의 참여가 미미한 실정

다. 교통취약지(오지), 거동불편 등으로 인한 마을별 건강격차 심화로 병원방문 어려움

○ 13개 읍·면 중 서천읍(병원 1개소, 의원 20개소), 장항읍(의원 4개소), 비인면(의원 2개소)을 제외한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의 부재로 보건지소가 진료와 함께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서천군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이 62.2% 차지하며, 충남에 비해 41.2% 높으며 전년대비 5.6% 증가로 매년 증가 추세임

※ 자료처 : 통계청, 2017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서천군 통계연보

## 2 사업 개요

○ 기 간 : 2019. 3. ~ 12.

○ 참여지역 : 6개읍·면 (서천읍, 마서, 한산, 판교, 종천, 서면)

○ 사 업 비 : 80백만원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 주요내용

- 읍·면 지역사회의 건강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과 민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 → 주민자치회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읍·면 지역사회별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맞춤형 건강안전망을 구축 운영
- 지역사회 협력기관 단체 간 연계강화 → 대상자에 대한 돌봄 지원 등 강화 확대

## 3 공모내용 요약 (2018. 9. 행정안전부, 2019. 1. 보건복지부)

○ 역할의 재조정 : 그 간 보건소 중심 지역보건사업 추진 체계를 지소를 중심으로 한 농촌형 Community care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공모



- 기획, 조정, 평가 분야만 남기고 읍·면보건(지)소에서 현장 맞춤형 업무 추진
- 방문, 정신, 치매 등 전담 전문인력 전진 배치 → 지역돌봄 T/F팀 시범 운영
-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현장중심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 ※ 보건복지부 '19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 ICT를 활용한 원격화상 진료 시범 사업에 선정
- 보건지소와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 주도형 보건사업 모형개발 및 제시
- 행정기관 :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지역사회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등과 협업 및 노력을 통해 건강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주도형 통합돌봄 실현
-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 모형 개발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제출

#### ④ 그동안 추진 상황

1. '18. 07. 19.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선도 자치단체 선정(행정안전부)
2. '19. 01. 08.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전략 공모선정(보건복지부)
3. '19. 01. 22. 2019년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Community care 군수님 내부방침
4. '19. 01. 28. 서천형 Community care 사업설명회 및 돌봄차량 전달식
5. '19. 01. 31. 방문전담 T/F팀장 공모
6. '19. 02. 26. 서천형 Community care 사업 수행을 위한 표어 공모  
「건강챙김-동네한바퀴」 선정
7. '19. 03. 04. 지역돌봄 T/F 팀장 발령
8. '19. 03.~04. 사업담당자 간담회 개최(읍·면장, 사회복지팀, 공중보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서비스 센터, 보건복지부 등)
9. '19. 03. 12. 서천군민 건강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25개소)
10. '19. 03. 27. 건강챙김-동네한바퀴 노래 직원 제작
11. '19. 04. 08 1/4분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회의 개최
12. '19. 04. 24. 공중보건의 및 사업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3. '19. 05. 08. 노인돌봄서비스 센터 업무협약(10개소)



14. '19. 06. 14. 「서울케어-건강돌봄」 벤치마킹
15. '19. 07. 02. 건강챙김-동네한바퀴 “브랜드 마크” 제작
16. '19. 07. 18. 2/4분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회의 개최
17. '19. 08. 12 ~ 22. 커뮤니티 케어 사업지역 방문 의견조사
18. '19. 08. 20.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방문하여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 간담회

## 5 앞으로 추진 계획

- ICT(정보통신기술) 원격협진 활용한 원거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대상자 선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도구 및 매뉴얼 구축 활용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보건의료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챙김-돌보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강구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도구 및 매뉴얼의 개발 활용으로 신뢰성 제고 등

## 6 제 1차 케어협의체 회의 의결수령 내용

| 구 분          | 회 의 내 용                                                                                                                                                                                                                                                                                | 비 고 |
|--------------|----------------------------------------------------------------------------------------------------------------------------------------------------------------------------------------------------------------------------------------------------------------------------------------|-----|
| 사회복지과<br>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시행위한 조례 제정 필요</li> <li>돌봄인력과 협력체계 간 DB구축 필요</li> <li>어르신들이 필요하는 돌봄사업, 행복이음, 공단 연계를 통합 보건의료분야 돌봄 빅데이터화 마련</li> </ul> → 돌봄대상자 지역별 구분하여 관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 관리 철저히 하여 보건과 복지가 협력하여 주거, 교육, 문화, 고용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 공백 최소화하기</li> <li>대상자 관리를 통한 전달체계와 관리내용 확인을 통해 모니터링 철저</li> <li>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 추구</li> <li>보건·복지 분야 효율적 연계를 통해 농촌형 통합돌봄 모형 개발</li> </ul> → 월 1회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포괄적 대상자 관리 |     |
| 주민자치<br>협의회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을 위한 행사 시 인원 참여 필요</li> <li>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li> <li>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병원방문 등 문제 해결</li> <li>보건지소가 없는 지역 직접 방문하여 예방접종 등 실질적 지원 필요</li> </ul> → 돌봄 대상자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 사각지대 최소화                                           |     |
| 주민자치<br>위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산의원보다 보건지소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수준의 질 향상 요구</li> </ul>                                                                                                                                                                                             |     |
| 노인복지관<br>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르신에 대한 기본돌봄, 장기요양돌봄, 맞춤형 방문간호 등 촘촘한 방문관리를 시행하도록 노력</li> <li>최고의 목적은 민관이 협력하여 한 분의 주거를 목적으로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기관별 방문관리(월1회), 기본 돌봄 사업 관리(주1회) 등 주기별 관리를 통하여 지원 및 관리하는 체계 요구</li> </ul> → 매뉴얼 개발 및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             |     |

## 7 제 2차 케어협의체 회의 의결수령 내용

| 구 분           | 회 의 내 용                                                                                                                                                                   | 비 고 |
|---------------|---------------------------------------------------------------------------------------------------------------------------------------------------------------------------|-----|
| 충청남도<br>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문제로 고령화 급속화, 마을 소멸론 대두</li> <li>◦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군민들의 바람임</li> <li>◦ 서촌형 지역사회 돌봄사업 간강주치의 → 동네주치의로 변화하여 사업 추진</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의 주민 마을의 면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집중적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원함 →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중요성 강조하여 사업 수행</li> </ul>                                          |     |
| 주민자치<br>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은 지방자치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실정<br/>→ 지방자치가 오래 되었지만 실제로 활동은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음</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핵심기관 역할 요구됨<br/>→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하여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민원 행정이 아닌 주민 스스로 찾아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li> </ul>         |     |
| 지역사회<br>보장협의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작은 손길과 금전적인 도움이 절실<br/>→ 대상자에 비해 부족한 복지에산으로 예산확보 방안 필요<br/>→ 2020년 사업 확대 실시 될 경우 예산확보 방안 마련 요구예정</li> </ul>       |     |
| 민간<br>의료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파악 요구됨<br/>→ '19. 3 ~ 5월 6개 읍·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하여 돌봄 대상자 발굴 및 파악하여 등록·관리 중임</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돌봄을 위한 후원회를 설립, 지원 단체 만들어서 예산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기</li> </ul>                                                                         |     |
| 국민건강<br>보험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대상자는 방문지침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자 제외로 하고 있는 바<br/>장기요양등급 4, 5등급까지 돌봄대상자 확대 요구<br/>→ 방문전담 인력부족 등 한계</li> </ul>                             |     |
| 이장단<br>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회관에 의사 방문하여 진료요구<br/>- 의료 시설이 없는 10개소 경로당 및 거동불편 노인 등 가정방문 사업<br/>→ 우리마을 주치의제(월 2회↑ 의사방문 필수) 운영 중</li> </ul>                   |     |

### Ⅲ. 연구모임 활동 성과 및 제언





### Ⅲ. 연구모임 활동 성과 및 제안

#### 1. 연구모임 활동 성과

##### □ 의회 차원의 연구모임 운영을 통한 농촌복지 체계 구축 방안 모색 계기 마련

- 의회 및 농촌 및 농촌 복지관련 주민·전문가가 함께 농촌복지의 현실을 파악하고 농촌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 추진
- 연구성과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도 및 시·군의 정책 반영 유도
- 융복합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모임 회원 구성
  -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한 농촌 복지 제고 도모
  - 도의회,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와 농촌활력과, 연구원, 농촌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을 구성하여 실효성있는 연구 결과 제시

##### □ 농촌복지 현장 실태 및 진단 시사점 도출

- 충남 농촌복지 우수지역 및 소외지역 현장방문을 통한 농촌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제시
-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토론회를 통한 주민중심의 농촌복지체계 구축 방안 과제 도출

##### □ 토론회를 통한 주민중심의 농촌복지 체계 구축 실현 방안 도출

- 의회,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 하는 정책발굴 워크숍 개최
  - 도의회 및 서천군 의회, 농촌·주민자치·복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해 공동체와 연계한 융복합 농촌복지 체계의 필요성과 구축 방안 도출
- 수요자 중심의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와 공동체의 융복합 사업 추진에 대한 인식 확산 계기 마련

## □ 민관협력 기반의 융복합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농촌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융복합화한 종합적인 농촌복지 체계 구축 방안 모색
- 민관협력 기반의 농촌공동체와 복지를 연계한 융복합 사업 발굴
- 기존 중앙정부 및 도의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향 도출
  - 중앙정부의 읍면단위 대상 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방안 도출
  -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인구유입 및 정착 유도 방안 모색

## 2. 정책 제언

### 1) 농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공간 확충

#### □ 읍면 정책의 융복합을 통한 농촌복지 거점 공간 구축

- 읍면을 주민들의 복지 관련 수요를 최소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능 강화 및 거점공간 조성
    - 읍면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유희 공공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종합복지센터 조성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거점과 중심지활성화 사업’,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행안부 ‘주민공공서비스사업’,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 등 정책 융복합 추진
  - 읍면 융복합 거점 시범사업(중앙정부 및 도의 행정사업과 연계 진행)
    - 중앙부처의 읍면 단위 사업과 민간활동의 융복합을 통한 읍면 단위 성공사례 도출
    - 주민자치회에서 읍면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진행시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 등
  - 마을단위 거점공간 조성
    - 마을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식사 및 복지교육 등이 통합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
    - 시설 활용 조직 육성 및 복지 활동가 양성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사례 :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는 복지문화센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운영을 목적으로 마을 주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10여명을 양성하여 정안면 남부 지역의 주민대상 요양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 기존 시설 활용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조례 제정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활용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연계 방안 연구 용역 진행
  - 현황 파악, 기존 시설과 복지시설 확충(보건소와 연계 시설확충) 및 지원 방안 도출 등
- (가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의 융복합 공간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시설을 활용한 복지 시설 확충 지원

## 2) 농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실행 체계 구축

### □ 조례제정 (가칭) '융복합 농촌복지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앙부처의 생활 SOC, 커뮤니티케어, 중심지활성화 거점 소규모재생사업 진행시 복지사업 의무화 등 포함
- 농촌복지 체계를 위한 역량강화(양성평등, 복지관련 인력양성 등)와 공유서비스(고령자 마을 이동 지원 등) 지원 근거 마련

###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 공무원 교육원 융복합 농촌복지 관련 교육과정 개설
- 마을복지사 활성화를 위한 마을복지 전문가 양성과정 시범사업 추진

### □ 읍면 마을복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 시군의 사회복지 시설 및 평생학습 교육과 연계하여 마을복지 인력 양성
- 마을복지 인력이 연계한 마을공동체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양성

### □ 중앙 및 충남도의 농촌복지 관련 사업 안내 책자 제작

- 중앙부처와 도의 농촌복지 및 읍면단위 행정사업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안내 책자 제작
- 수요자인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사업 활용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 보건지소 중심의 지역통합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통합 복지체계 구축 및 지역 일자리창출

-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신설시 지역의 사회복지사 채용, 보건지소에 간호사 확충 등으로 분리하여 특화시키는 체계 구축
  -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조직 기반 구축' 사업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확충(사회복지직과 간호사 채용)추진중임
  - 충남은 보건분야의 특화를 위해서 보건지소에 간호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분리 추진
-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마을 담당 마을복지사 역량강화 및 배치